

문화정책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로컬로 턴
VOL. 24 / 2024 SPRING

지역과
청년

이슈

페이지

최근 청년유출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영역에서도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다.
로컬로 턴이라는 연간주제 하에
이번 24호에서는 부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문화예술분야에서의 지원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부산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행인 이미연
편집인 박소윤
편집위원 김선영 김주현 장혜원 이소민
발행처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발행일 2024. 3. 31.
디자인 제작 스토리진

필진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칼럼	
무진 1964-2024 박소윤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04
이슈	
1. 아무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장혜원 / 하트인부산 발행인	06
2.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에 대응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컬리즘 김주현 / 경성대학교 글로컬문화학부 교수	10
3. 어쩌다 부산, 좋아서 부산 김미양 / 작가, 기억과 부역사이 대표	12
4. 기회, 동료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부산을 상상하다 원향미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15
사람과 현장	
부산의 로컬 크리에이터 이연주 현대무용단 자유 대표 / 강희재 러브쏘피 대표 대담자 이소민 /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18
연구보고서 돌아보기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리뷰 조명제 /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3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6

무진 1964-2024

박소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센터장,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와 영상매체 협동과정 겸임교수

무진(霧津)은 광주에서 기차를 내려서 버스로 갈아타고 가야 하는 바닷가 지역이다. 안개로 자욱한 그곳은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이 갖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쓸쓸함의 은유다.

김승옥이 1964년 발표한 단편소설 『무진기행』의 주인공 '나'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잠시 고향 무진에 가게 된다. 가난한 폐병 환자였던 지난날, 몸서리치게 떠나고 싶어 했던 그곳이다. 모임에서 우연히 젊은 날의 자신처럼 이 쓸쓸한 무진을 떠나 서울로 가기를 열망하는 하인숙을 만난다. 처음 만난 '나'에게 몸을 얻 하인숙이 욕망하는 것은 '나'를 통해 도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서울이다. 무진에 살았던 '나'도, 무진에 살고 있는 하인숙도 서울은 욕망하는 그 모든 것으로 표상된다.

무진의 청년들은 왜 그토록 서울에 가 닿고 싶었을까. 1961년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제3공화국이 주창하던 것은 조국 근대화였다. 근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시대는 넓다. 중세 때 교회 문헌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변화는 이 근대라는 단어 안에서 꿈틀거리며 각 시대 들을 열어왔다.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는 산업화를 의미했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71) 때만 해도 농업정책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3차 경제개발 5개년(1972~1976) 계획에 접어들었을 때는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군부독재의 중앙집권적 체제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중심지로서의 서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산업화 전략은 농·어촌 중심의 지역사회를 빠르게 해체 시켜갔다. 지역의 패기 넘치는 청년들은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하고, 지역에서 거주하던 청년들도 서울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서울은, 무진과는 달리 미래가 보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을 어떻게 대해왔을까.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제정된 후 2024년 5월까지 총 72회의 개정과정을 헤쳐나왔다. 75년간 무려 72회에 이르는 개정은 지역에 대한 정치적 계산, 혹은 고심이 많았음을 알게 한다. 지역문화와 관련한 최초의 흔적은 1951년 이승만 정부 당시 시작된 지방문화원이다. 이것은 1960년까지 20개소로 늘어 났다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대에는 124개소로 확대되었다. 이 지방문화원을 받치는 법이 1965년 7월 제정된 「지방문화사업 조성법」이었다. 이 법의 제2조에서 명시하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업적을 그 협조하에 일반에게 주지시키는 사업, 향토문화를 계발·보급·선전하는 사업, 외국의 문화기관과의 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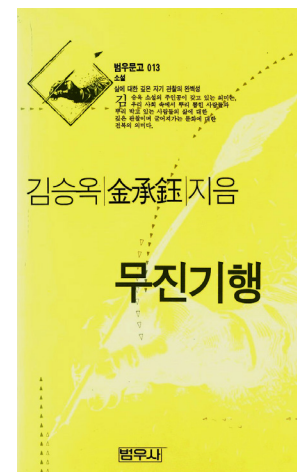
조하에 민주 우방 제국의 문화를 소개·선전하는 사업이 이 법의 대상이었다는 점을 볼 때, 지방문화원이 지역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해 작동했다기보다는 정부의 문화정책을 전달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1994년 7월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마침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고 광주, 경주, 전주, 부여·공주에 문화도시를 조성하였다. 지역문화와 관련한 법 제도도 정비하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2016년 5월 지역문화진흥원을 개원하였다. 현 정부는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파른 인구 소멸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주로 인한 비수도권의 지역소멸을 멈추게 하기에는 숨이 가쁘다.

무진은 실재하는 지명은 아니지만 60년대 이후, 비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무진일지도 모른다. 2024년의 지역은 1964년의 그곳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일자리, 출산 장려 등 여러 정책을 내지만 청년들에게 닿지는 않는다. 그 제도들이 자녀 1명당 얼마 주겠다는 식의 기계적인 목적 달성과 단기 성과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용도나 목적에 의한 '본질'이 아닌, 그 존재만이 중요한 '실존'임에도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자원이니, 비용이니 라는 식으로 그 존엄성을 폄훼 시키고 있다. 인생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 간헐적이고 단기적으로 제공되는 비정규 일자리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그 자체로 환대하지 않고 효용자원으로 대하는 사회 시스템에 대해 청년들은 비출산으로 저항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편 청년인구의 대도시 이주는 단순히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춘천, 진천, 음성, 태안, 순천, 창원, 울산 등 여러 산업도시가 있긴 하지만 여기가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는 아닌 것 같다. 청년들은 주중에 일만 하고 여가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보낸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미 즉 문화이기 때문이다. 언제든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뿐 아니라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공원, 카페, 펍, 책방 등은 그들에게 정주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이다.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이 가진 다양성을 포용하는 진심 말이다.



김승옥, 『무진기행』, 범우사, 1994

아무도 대신 이야기해주지 않는 우리들의 이야기

장혜원
하트인부산 발행인

부산에 사는 청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취업 문제를 바로 떠올릴 것이다. 살기 위해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려는 청년들. 필자도 부산에 사는 청년으로 20대 때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다. 돌이켜보면 고등학생부터였다. 당시 주변에는 전문대를 가더라도 무조건 인서울은 해야한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20대가 되니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나는 지인이 늘었고, 언제든 떠나려 했다. 필자가 로컬 잡지를 기획하게 되었던 출발점도 여기에 있다. 하나 둘 꿈과 직장을 찾아 부산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청년인 우리가 부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 가진 재능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하트인부산>을 제작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 보면 애정이 깊어지고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는 등의 선순환을 생각하며 만들었다. 부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겠구나, 부산에 대해 더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나은 부산을 위해 마음 쓰지 않을까. 부산에서 활동하는 여러 문화인을 만나고 로컬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알리는 역할의 매체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잡지를 선택했고 2017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9권의 잡지를 발행했다.

잡지를 택했던 이유는 다양한데 가장 큰 이유는 손에 잡히는 결과물, 그리고 오랫동안 인쇄물로 기록이 보존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청년들이 전하고, 알리고 싶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 내어 '부산 지역의 활성화와 아카이빙'이라는 나름의 소명을 가지고 실물 제작을 도전한 것이다. 다양한 콘텐츠를 한 권으로 담아내 청년들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생산하는 계기가 되는 좋은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에도 너무나 많은 로컬크리에이터가 있고, 꾸준히 자신의 분야를 발전, 확장해 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조금만 알아본다면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 제도들도 있다. 많은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꾸준히 낮추는 작업은 해야겠지만, 없어서라기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해 뒤야 할 이야기들을 부족하게나마 책으로 엮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알아갔으면 한다. 로컬을 잘 아는 만큼, 로컬에서의 경쟁력이 생긴다. 문화와 예술이, 사람과 사람이 로컬 잡지를 통해 지속적인 연결

로 네트워크 생성 및 활동 영역 확장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코로나 이후 휴간된 상태이지만 로컬 잡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와 확장된 콘텐츠로 문화는 계속만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전국에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로컬 잡지를 제작하고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청년이 만나 시너지를

부산에서 청년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만든 로컬 잡지가 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젝트인 '2023년 금정 청년 러스틱 드림 사업 금정명작'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매거진 제작 프로젝트이다. 이는 청년 인구 소멸 지역으로 금정구가 선정되면서 지방 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청년 양성에 투자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통해 22명의 청년 문화기획자가 탄생하게 되었다. <슬금 탐구(슬기로운 금정 탐구생활)>는 진행했던 문화기획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만들면서 있었던 고군분투기를 인터뷰로 담아낸 한 권의 특별편이다. 잡지에는 14개의 프로젝트가 소개되고, 문화기획을 하며 배우거나 성장하게 된 포인트가 담겨있다. 잡지를 기획한 박희수, 정은진 기획자는 <슬금 탐구>를 통해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고, 청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길 바란다. 또한 그녀들은 휘발될 수 있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 향후에도 도움이 되고, 잡지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더 나아가 온라인 발행 등 다양한 콘텐츠도 지역 내에서 좋은 에너지들이 환류되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길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부산 청년들이 만든 로컬 잡지 <슬금탐구>

로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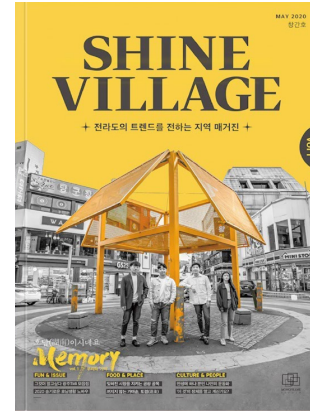
고창 청년들이 만든 <시고르자브지>는 고창청년벤처스 청년들로 시작된 로컬 잡지이다. 조은진 기획자는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잡지를 통해 시골에 정착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한다. 2022년 6월 온라인 창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18회 발행하였고,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종이잡지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1회 발행했다. 시골에는 도시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 많다. 그는 그 청년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내기 위해 잡지라는 매체를 선택했다. 그리고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을 제대로 소개해 주고, 지역과 세대를 넘어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하나씩 달성해가고 있다. 보통 언론에서는 귀촌 성공사례, 유유자적한 인생만 부각해 소개를 하니 시골의 청년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 <시고르자브지>는 청년의 치열한 삶의 목표를 사회적 성공에만 두지 않는다. 대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과정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청년의 모습들은 올해를 시작으로 잡지의 글에서 나와 오프라인 공간에 펼쳐진다. 앞으로 <시고르자브지>는 '배꽃 피크닉(4월)', '미식 다이닝(10월)'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고창 청년들이 만든 로컬잡지 <시고르자브지>

내가 사는 로컬 알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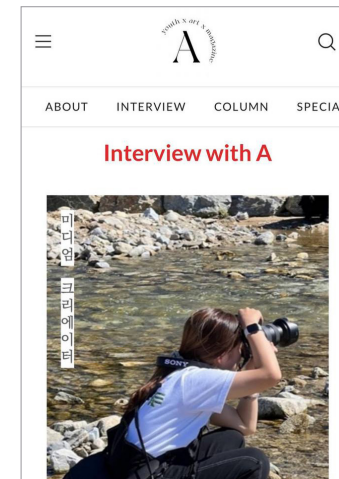
2013년 12월 전남대학교 대학생 2명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알릴 수 있는 프로젝트로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아따 광주랑께?>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멤버였던 김주영 기획자는 SNS를 통해 카드 뉴스로 주로 소식을 알리다가 여행 그리고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로컬을 다양한 연령대가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광주(光=빛나는, shine 州=고을, village)라는 뜻의 <샤인 빌리지>라는 로컬 잡지를 2020년 4권 발행하였다. 대학생 에디터들과 함께 청년의 시선으로 바라본 광주를 다양한 주제로 담아내었고, 각 장소를 즐길 수 있는 요소에 주목하여 깊이 있는 내용을 다뤘다. 발행인 김주영씨는 로컬에서 많은 사람이 지역을 더 알고 사랑하도록 잡지뿐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나가는 중이다.



전남 청년들이 만든 로컬 잡지 <샤인 빌리지>

Youth X Art X Magazine

2021년, 서울경기 청년들이 모여 'Youth Art Magazine' 명칭의 메일링 서비스로 시작한 <Dear.A>는 친애하는(Dear) 모두에게 청년 예술가의 예술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디어에이 제작자들은 잡지라는 매체가 '관심 분야 입문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청년들의 작품, 예술관을 맘껏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의 역할로 웹 매거진, 지류 매거진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은 <Dear.A>를 통해 예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어 많은 청년이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청년 예술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예술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을 콘텐츠에 담아 그들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서울경기 청년들이 만든 예술 잡지 <Dear.A>

지역소멸과 청년유출에 대응하는 대학, 그리고 글로벌리즘

김주현
경성대학교 글로벌문화학부 교수

최근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역소멸', '청년유출', '수도권 집중화'와 같이 '쇠퇴'를 연상시키는 용어들을 흔히 마주할 수 있다. 수도권 인구 유입의 가속화와 그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예전부터 제기되어왔으나, 최근 더욱 빈번하게 관련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접한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역소멸, 청년유출과 같은 문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최근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228개)에서 52%(118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22%(51개)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즉, 국가의 74%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으며 30년 후에 해당 지역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국내 제2의 도시로 불리었던 부산도 이러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으로 이주한 부산 인구는 약 11,260명으로,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최대치이다. 특히 2534세 청년 중 7623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다. 수치화된 자료들을 확인하자니, 문제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지는 듯하다.

본인은 대학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음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이 각자의 길을 명쾌히 걸어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주제의 연구와 교육 과정의 운영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서의 연구는 지역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교육은 학생들이 각자의 삶에서 스스로 행복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하지만 본인이 속한 대학을 포함한 다수의 비수도권 지역 대학들이 인재 확보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이들은 비수도권 사회·문화·일자리 등 인프라의 부족만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야기한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자면, 대입을 앞둔 입시생의 관점으로 '비슷한 내용의 교육이라면 아무래도 수도권 대학으로 진학'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학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글로벌리즘은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지역의 특성, 지식, 문화, 경제 등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교통수단·온라인 환경·대량생산 시스템 등의 급진적 발달로 야기된 전 세계 시장 획일화는 어떤 이들에게는 커다란 부를 안겨주었지만, 문화적 융화와 소멸, 노동력 이동과 실업,

환경 파괴, 불평등 증대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켰다. 이에 사회적 균형을 강조하는 동시에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세방화(世方化), 글로벌리즘 개념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글로벌리즘이라는 용어는 글로벌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전 세계를 휩쓸자, 위기를 느낀 지역 음식 산업군과 마케팅 연구 분야에서 초기에 사용하였다. 현재는 지역 균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개념이 되었으며, 최근 각 대학의 지역연계 특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명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글로벌리즘 개념의 등장 배경을 보자면, 현재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이 처한 상황과 매우 중첩되어 보인다. 과거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교육의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전국 대학 기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다. 소수의 특성화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몇 년 전까지 큰 문제 없이 유사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출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위를 취득시켜왔다. 전체적인 인구수가 감소하는 동시에 청년들의 지역 이탈률이 급증하는 지금, 대학은 글로벌리즘 용어를 앞세우며 인재를 확보할 방안을 찾고 있다. 늦었지만, 여기에서부터 지역 대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과제를 현명하게 풀어내야만 한다.

- 가. 대학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리즘 기반 교육 과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 나. 교원들은 차별화된 관점으로 각자의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는가?
- 다. 교원은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 정책 등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가?
- 라. 지·산·학 연계형 프로젝트를 꾸준히 운영하며 향후 지역에서 학생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가?
- 마. 졸업생들은 차별화된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 역할을 활발히 찾아낼 수 있는가?
혹은 대학 교육을 통하여 형성된 높은 지역 애착을 바탕으로 지역 내 취·창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가?

지역의 소멸과 청년의 유출은 거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야 한다. 몇 가지의 단서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겠지만, 학생들이 대학에서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차별화된 '교육', '연구', '봉사'를 진심으로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어쩌다 부산, 좋아서 부산

김미양

작가, 기억과 부엌 사이 대표

제주 사람이 '어쩌다' 부산에서 10년

벗꽃이 곧 흐드러지게 피어날 듯 말듯, 사람 마음을 간지럽히는 시기다. 내가 난생처음 부산 땅을 밟았던 날도 꼭 지금과 같은 봄날이었다. 10년 전, 캐리어 하나 질질 끌고서 부산역을 빠져나오던 그때만 해도 부산에 이리 오래 머물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눈 감았다 떠 보니 어느새 10년. 그사이 나는 부산에서 책을 내고, 부산에서 문화기획을 하며, 부산 토박이 남자와 결혼식을 올린, 명실상부 '부산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제주에서 태어나 대전 찍고 부산.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특별한 나의 주소 변동 이력 때문에 이런 질문도 자주 받았다.

“제주도 사람이 어쩌다 부산에 오게 됐어요?”

처음엔 상세하게 답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아무리 우여곡절이 많아도 결국은 세 단어로 압축되는 사연이었다. 고향을 떠나 대전으로 간 이유는 '학업', 부산에 오게 된 이유는 '취업', 부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된 이유는 '혼인'.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질문과 답이 모두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내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 청년에게는 아무도 상경하게 된 이유를 묻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왜'가 필요치 않으니까. '인 서울'을 목표로 삼는 것이 당연한 서울공화국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서울' 외에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

한때 제2의 수도였던 부산은 이제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다 보니 부산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서울로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고, 외부 청년들을 이곳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부산 청년들이 입 모아 외치는 것은 '일자리 증대'와 '주거비 완화'다.

물론 그것만도 단기간 내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어보고 싶다. 고향과 서울 외에 자신이 살아갈 지역을 선택하는 우리의 기준이 더 주관적이고 다채로워지기를 꿈꾼다.

내가 부산에 오게 된 결정적 요인은 '일자리'였지만, 내가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게 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도 존재했다. 제주도 출신인 나에게는 대학 시절 머물렀던 대전보다 부산 음식이 입맛에 잘 맞았다. 또 대도시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제주도처럼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점이 크나큰 매력이었다.

나처럼 다른 지역에 살다 부산에 정착하게 된 주변 청년들 또한 저마다의 사적인 이유를 하나씩 품고 있었다. 바다, 산, 강이 함께 있어 언제라도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도시라서. 지하철과 고속버스, 기차, 비행기, 배, 모든 이동 수단이 갖춰진 교통의 중심지라서. 날씨가 덜 춥고 덜 더워서. '붓싼아이기'로 다 통하는 부산 사람 특유의 낙천적이고 시원시원한 성미가 잘 맞아서.

부산을 택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는 없지만 부산에서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지극히 사소하고도 사적인 비결정적 요인. 이러한 점들은 두 개 이상의 도시에 살아보아야만 몸소 발견할 수 있는 매력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청년들에게 주어진 건 "in 서울 or not" 이 두 가지 선택지만이 아니라는 걸, '나에게 잘 맞는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걸 청년들이 눈으로 보고 발로 걸으며 직접 느껴볼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2023년도 영도문화도시 연결기획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유토피아를 위한 공동기획구역> 프로젝트는 그런 점에서 인상 깊었다. 부산 영도에 도착한 울산 기획자와 장생포에 도착한 영도 기획자가 서로의 낯선 도시를 탐색하며 각자의 눈으로 직접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는 실험이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역들의 세세한 명칭을 다시 호명하며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청년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교류'와 '재발견'으로 다시 생동할 부산 문화예술을 위해

머물 수 있는 집과 최소한의 생계비만 보장된다면, 부산은 누구에게라도 한 번쯤 '살아보고픈' 도시다. 타 지역 청년예술가들이 부산에 머물며 창작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면 어떨까. 단, 여기저기서 유행하는 '한 달 살기' 프로그램처럼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은 바라지 않는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꾸준히 부산과 관계를 맺으며 두 지역을 오가거나 혹은 부산에 뿌리를 내리고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필요하다.

현재 부산문화재단에서 진행 중인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굿모닝 예술인'과 '굿모닝 예술로' 사업 외에 타 지역 문화예술인을 부산 기업과 매칭시키는 이른바 '웰컴! 예술인' 사업을 시도해보았으면 한다. 부산에서의 활동 경험으로 시작해 부산에 정착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제도도 부산식으로 풀어보면 좋겠다.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청년들도 부산의 문화예술단체에 연수단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일 경험을 쌓고, 이후 정규직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경우, 관련 분야에서의 근무 경험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다 보니 실무에 대해 조언해 줄 사수가 없어 힘든 점이 많았다. 문화예술단체에서의 연수 경험은 이러한 막막함을 해소시켜주고, 문화예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펼쳐나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활동 중인 지역 청년예술가들에 대한 조사를 선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

「2023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에 따르면, 부산은 전국 평균 대비 2040세대 예술인 비율이 낮은 편이다. 미래의 문화예술을 끌고 갈 성장 동력이 부족한 것이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국 평균	19.2%	32.2%	17.9%	13.1%	10.9%	5.0%	1.6%
부산	15.8%	23.1%	15.7%	15.3%	17.0%	9.8%	3.4%

[표 1] 예술인 세대별 비율 전국 평균 및 부산지역 비교
출처: 「2023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

그러나 이 자료로는 결코 부산 청년 문화예술의 현주소를 다 읽어낼 수 없다. 이 통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만 집계가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혹은 비등록) 청년예술가들을 눈여겨 보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작년 12월 서면에서 열린 <제1회 마우스 북페어>가 그 사례다. 부산·경남 지역 최초의 독립출판 축제로, 지자체의 지원을 통하지 않고 예술가들이 사비를 털어 자력으로 이뤄낸 행사였다. 100개가 넘는 부스가 빼곡히 채워졌고,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나 '예술인활동증명'과는 무관하게 모두가 서로의 출판물을 응원하고 서로를 예술가로 존중하며 평등하고 아름다운 축제를 펼쳤다. 부산이 좋아 부산에 살면서 '지원제도 바깥에서' 활동 중인 예술인들을 어떻게 뒷받침해줄 것인지. 이 숙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란다.

기회, 동료가 함께 하는 청년들의 부산을 상상하다

원항미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올해 고3 수험생이 된 큰아들에게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은 어디서 하고 싶냐고 물었다. 부산에 좋은 직장이 있다면 부산에 머무르고 싶다고 답을 들었지만 뒤이어 부산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도 함께 들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으니 'Be ambitious!'의 마음으로 고향을 떠나던 우리 세대 청년들과 달리, 요즘의 부산 청년들은 의지와 상관없이 등 떠밀려 타향살이를 시작하는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하다. 자신의 전망을 찾아가는 여러 갈래 중에 지역에서의 삶을 만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는 부산이 해결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도시들이 축소의 길을 걷고 있다. 부산만 규모가 작아지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부산의 속도는 자연스럽지 않게 너무 빠르다.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다.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통계를 살펴보면 20·30대 예술인들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 물론 객관적 수치로 보면 30대 예술인들이 부산 전체 예술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30대 예술인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50대 이상 예술인들의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현재의 수치는 부산에서 예술인으로 진입하는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들이 예술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야 이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청년 예술인들이 활동하며 머무를 수 있는 도시가 되기 위해 부산광역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도적 기반과 지원사업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도적 기반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육성 조례

2017년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문화활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명기되어 있다.

제15조(청년문화사업) 시장은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문화 관련 전문 인력 육성 사업
2. 청년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3. 청년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
4. 청년문화 거리 조성 사업
5. 국내외 청년문화 교류 사업
6. 청년문화 인적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업
7. 청년문화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6조(청년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① 시장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청년문화예술 공간 제공, 청년문화예술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 10월 제정된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7조(지원사업)

- 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
 4.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 전시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
 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7.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
 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연구, 정보제공 및 홍보 등

청년 기본조례와 청년 문화예술육성 조례에서 언급된 지원사업들은 여러 경로로 추진 중이다. 모든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단계적으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광역시 청년 관련 문화분야 지원 정책

부산의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은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청년플랫폼에 제시된 문화복지영역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기관	
청년 문화공간 지원	• 사상인디스테이션 •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 청년작당소	부산문화재단 외	
신진청년예술인 인큐베이팅 및 경력개발 지원	지역 청년예술인 30명 내외 부산문화회관 공연 참여 기회 제공	부산문화회관	
청년 문화육성 지원	창작활동 지원	• 청년신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우수예술인 집중지원 (공연-연출가 제작/시각-레지던시 파견) •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부산문화재단
	네트워크 지원	• 청년예술가 국제교류 • 기업협력형 창작활동 • 아트페어 [under39] • 청년예술작품 구독	
	홍보	청년문화 홍보	
청년 만원 문화패스	지역 우수공연 1만 원으로 관람 기회 제공(선착순 5천명)	부산경제진흥원	
청년 문화축제 개최	부산 댄스 페스티벌 개최	-	

부산지역의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은 크게 공간 지원, 창작 지원, 유통 및 교류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진예술가들의 진입 기회 제공을 위한 신진예술가 창작 지원부터, 교류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아트페어, 작품 구독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청년 예술인들과 시립예술단이 함께 하는 기획공연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활동 기회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오페라하우스 또한 시즌 단원제를 통해 청년 예술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청년층의 문화 향유 수요를 위해서 올해부터 새롭게 청년 만원 문화 패스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복지 영역 사업은 아니지만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도 추진 중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공간들이 청년 커뮤니티의 활동 기지로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회, 동료, 롤모델이 함께 하는 문화도시 부산 만들기

과거 인터뷰를 통해 만난 청년 예술인들은 앞서 언급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예술계에 진입하고 안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지원사업을 통해 전시회나 공연을 할 수 있었고, 레지던시 사업을 통해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예술 활동의 기회가 많아지고, 작업을 함께할 동료들이 많아지는 것은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을 기회의 장으로 인식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여기에 덧붙일 요소는 롤모델의 존재이다. 지역에서의 예술활동을 통해 성공적인 롤모델이 된 중견, 원로 예술인들을 통해 청년 예술인들은 부산에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는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선배 예술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도 이 지역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예술인들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일터로 삼기 위해서는 그들이 중년, 노년이 되었을 때도 부산이 일터로서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예술을 이어나가기로 뜻을 정한 이들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인을 포함하여 지역 예술인 전체를 위한 촘촘한 지원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부산이 구체적인 미래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의 로컬크리에이터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창업가 강희재 대표와 무용가 이연주 대표를 만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이유, 그리고 청년유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답자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 이소민 연구원

자신의 주요 활동을 소개해달라.

희재 '러브쏘피 드로잉 스튜디오'에서는 가지고 온 사진을 모니터 위에서 그리면서 그 추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다 그린 그림을 휴대폰 케이스, 이어폰 케이스, 액자 등 30~40개의 종류 중 하나의 굿즈로 제작한다.

연주 현대무용단 '자유'는 공연을 위주로 활동한다.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지원받아 공연을 이어나가고 있다. 나아가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활동하고자 노력하는 무용수들이 모여있는 단체이다.

어떤 계기로 활동/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희재 외국어와 관련된 회사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화된 무급 휴가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회사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생각에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했다. 학부에서는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로가 미술로

옮겨가게 됐다. 그렇다고 바로 미술 관련 창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퇴사를 하고 1년 정도 쉬면서 아이패드로 꾸준히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을 SNS에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작가 참여 제안을 해왔고, 그 기회 덕분에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반응을 살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혼자 그림을 그리기보다 사람들과 함께 그릴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했고, 창업을 결심했다.

연주 사촌 언니가 부산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것을 보면서 컸다. 그 영향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없이, 자연스럽게 무용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 사촌 언니가 있었던 부산대 무용과 그리고 현대무용단 '자유'에 나 역시 언니의 길을 그대로 따라 들어왔고, 지금은 무용단 대표직까지 맡게 되었다.

활동 및 창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가?

희재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 회사 생활을 할 당시에는 주어진 일을 해내면 됐지만,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야 할 것이 많다. 그래서 실용서 위주의 책을 많이 읽고, 잘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가서 보고, 분석도 한다. 사례는 미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공방을 대상으로 삼는다.

연주 창업과 달리 이러한 무용단 활동의 경우, 아무리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레슨을 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지속성을 유지해 왔다. 무용단의 대표가 된 이후, 생계가 어려워 무용을 그만두는 후배들을 지켜보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 대표로서 더욱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 대개 지원금은 대관료, 무대 감독비, 조명비, 의상비 등 지출할 곳이 많다. 그러나 내가 더 발로 뛰다면 이러한 비용을 줄여 무용수들의 페이를 더 챙겨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더 많은 사업을 하는 등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다.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

연주 어렸을 때부터 무용단에서 수많은 컴피티션에 참가했지만, 대표가 된 이후에는 다양한 활동을 위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컴피티션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던 중에 부산무용제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전국 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하는 등의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희재 부산이라는 지역으로 여행을 올 때, 대체로 가는 곳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 공방을 많이 찾아주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들기로, 부산에서의 여행을 굿즈라는 결과물로 남길 수 있게 되어 인상 깊었다는 말이 많이 들었다. 그렇기에 타지에서 많은 분

들이 공방을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부산 지역에서의 활동/창업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연주 장단점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도 지원정책이 늘어났다는 것이며, 단점은 그 지원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무용관련 컴피티션 중 부산무용제가 부산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 부산에서의 활동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

희재 부산에서는 이러한 공방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인이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장벽이 낮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다고 다 잘되는 것



'러브쏘피 드로잉스튜디오' 강희재 대표의 모습

은 아니다. 반면 문화생활을 누릴 곳이 많지 않아, 타지역에서 문화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공방을 찾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다.

활동 기회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하다고 보는가?

희재 그렇다고 본다.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너무 당연하게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부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점도 있다.

연주 저 또한 그렇다고 본다.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만, 과거에 비해 부산에서의 지원도 다양해지는 등 많은 발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산에서 도전할 기회가 더 열렸다고 생각한다.

현재 활동/취업 관련 지원정책의 한계 및 장점에 대한 의견은?

희재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금만큼이나 관광 분야에서 받은 지원금도 많다.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및 창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그렇기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더욱 동기부여도 된다. 그리고 한 계라기보다 추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다. 인근 사장님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같이 상권을 살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리단길 도장깨기를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함께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좋을 것 같다.

연주 공연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그 지원금으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반면에 정책의 한계라면 중복 수혜 불가능, 나이 및 지역 제한 등이 있다. 가령 중복 수혜의 경우, 우수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면, 다원예술 사업에 지원할 수 없는 등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지역 제한

의 경우, 공고에 부산 거주자만 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용수 중에 개인적 이유로 주소는 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부산에서 거주하며 활동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는 등 애로사항이 많다. 무용수들에게는 다양한 공연의 기회가 열려 있어서 질 좋은 공연을 선보이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 지원정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원의 규모와 범위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이 절실하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의 청년유출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주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든다. 일단 순수 무용학과는 부산대학교만 남아 있다. 동아대, 신라대 등 거의 폐교됐다. 그리고 무용과를 졸업한 이들이 수도권으로 가거나, 생계문제로 무용을 그만두는 이들을 볼 때, 내가 더 많이 이끌어줘야 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수도권으로 옮겨 간 친구들을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면, 더 다양한 기회를 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에 대견하기도 하고, 부러운 마음이 함께 든다. 젊은 계층들이 젊은 감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해줘야 부산 지역의 무용계가 굴러갈 수 있는데, 아쉬움 마음이 한가득이다.

희재 저 또한 최근의 큰 이슈이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본다. 대표의 입장에서 채용을 하려고 보니,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됐다. 특히 함께 커가기 위해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한 분들을 채용하여 일을 알려주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점을 배워서 수도권으로 떠난다. 이렇듯 함께 커갈 수 있는 인재가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

희재 양질의 일자리와 채용 정책, 문화 환경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대해 부산시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가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지원 수준과 기간, 청년의 범위 등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기업과 청년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연주 지원금에서 댄서비용을 책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생계가 안정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가령 현대무용에서 정기적으로 무용수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구 시립무용단과 서울에 있는 국립현대무용단뿐이다. 또한 수도권으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차라리 수도권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 나아가 외국과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으면 한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초연 「지독했던 오후」, 2019 (사진제공자 박병민)



‘러브쏘피 드로잉스튜디오’ 강연 참여자의 활동 모습

부산시의 예술인으로서 문화 예술계에 있어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언주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혹은 활동을 희망하는 무용수들의 커뮤니티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상호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가 만들어 자립해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희재 앞서 지원정책의 한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향유 및 기회 등의 수도권 집중을 지역으로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란다. 또한 창업이 집에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기에서 시작되었듯 청년들이 작은 도전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향후 계획을 말해달라.

희재 정말 큰 포부가 있다. 바로 '문화예술학교'를 짓는 것이다. 지역을 비롯해 여러 환경에 의해 문화예술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싶다는 아주 크고도 멋진 포부이다.

언주 매년 정기 공연을 반드시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이제 무용을 시작하는 단계의 무용수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여러 지원사업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 강희재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으며,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전공을 살려, 현재 부산진구에서 '러브쓰피 드로잉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 이언주는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으며, 현재 현대무용단 '자유'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채용 정책, 문화 환경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대해 부산시가 고민해주길 바란다.”



현대무용단 '자유'의 공연 「적정온도」, 2021 (사진제공자 김도일)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리뷰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조명제
신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지역소멸이라는 화두

근래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지역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거나 어쩔 수 없는 경향으로 체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더욱이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층이 대학 진학과 취업으로 인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역대학의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본래 지역소멸은 2014년에 일본에서 제시된 마스다 보고서에서 촉발된 것이며, 다음 해에 한국에 소개되면서 논의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에서 제기된 도쿄 일극집중의 시정, 출생률의 향상 문제는 한국사회의 과제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과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지만 하나의 의제로 논의될 뿐이며, 위기의식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 방안은 근래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 성과로 제시되고 있다. 2022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김규원·김소연·변지혜, 「대학과 지역문화 연계 방향 연구」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지역문화를 지원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를 검토, 연구한 보고서이다.

적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획일적인 정책보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곧 지역소멸에서 지역 매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전환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만 가능하거나 특정 지역이 갖춘 장점이 있는 매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지역 매력에 연계되는 분야로 문화예술, 문화 및 관광서비스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대학과 지역문화를 통해 제시했다.

대학이 지역문화를 견인할 수 있는가.

이 보고서는 지역문화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로서 청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이에 대한 대학과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문화 분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의 지방대학 연계 정책인 LINC 사업, 지역문화 생산 주체로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과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데 정부 지원으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 지속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대학이 수행하는 지역 연계 사업은 현실적인 한계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학 지원 사업은 중장기적인 대학 혁신과 발전 방향에 입각한 것이라기보다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되거나 땀질식 처방에 가깝다.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청년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을 압박하는 정책을 구사하면서 일방적인 대학평가에 상응하는 국비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과 함께 대학이 과연 다양한 사회 현안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적합할까. 현재 대학은 정부의 재정지원, 각종 연구비와 발전기금의 획득에 골몰하고 있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교육부의 대학평가는 지역대학의 생사를 좌우한다. 그리하여 대학-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각종 사업은 지역 공헌보다 대학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교육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수적인 요구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있다. 근대 이후 주체적으로 대학을 제대로 만든 경험이 없는데다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적 모색도 부재한 것이 한국 대학의 자화상이다. 구조적인 개혁은 요원하더라도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의 시스템 구축과 거버넌스 개혁이 먼저 요구된다고, 한 마디로 요약하고 싶다.

지금과 같이 학과 중심의 대학제도에서 지역 연계형 교육과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학에 지나치게 많은 관리 업무가 부여되고 전문 외의 의사결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연구와 교육의 전문가에 불과한 교수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내의 시스템과 전담 스텝이 구축되어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수행될 수 있지만, 현실은 임시적인 사업단과 비정규직으로 꾸려질 뿐이다.

나아가 대학의 이수 커리큘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예를 들어 로컬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대학에 소속해서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테마에 따라 대학, 학과, 지도 교수 등을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든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학과, 대학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열린 대학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필자는 보고서의 방향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여건이 마련되고 디테일한 거버넌스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라는 난제는 당위적인 공감을 넘어서서 기존 정책과 대응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실마리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지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심화되지만 지역분권을 위한 목소리는 울림이 약하다. 수도권 집중이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정부는 증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을 그때그때 내놓는 식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 지역이 소멸하면 서울도 무너지고 국가도 위기를 맞게 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볼 뿐이다.

이러한 무관심은 정치권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공감 부족이나 편견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심과 중앙권력에 대한 대중의 갈망, 지방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역 정체성과 고유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언설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강조하는 논리는 중앙이라는 수도권은 보편이고 지방은 특수라는 선입견이 숨어 있다. 수도권 집중은 특별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가 아니라 사람, 자본, 정부 지원 등이 몰려 이루어진 결과이고, 지방의 희생과 맞물려 있다. 서울이 특성화를 통해 이룬 성취가 아니라면 지방에 그러한 요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아가 지역 특성을 말하지만, 서울에서 생산된 획일적인 문화가 지역으로 쏠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도의 경제, 인구 규모라면 지역마다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독자적인 재생산구조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국립대학조차 학문의 자기재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대학에서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거의 무너진 현실에서 어떻게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주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대학의 역할과 지역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토목사업이나 이벤트 수준으로 지역 문제에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지역의 대학과 문화예술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당위성만으로 현실을 타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이 기능 연수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현실에서 대학의 역할과 지역문화의 재생이라는 화두가 엄중하다는 사실을 지역민에게 제기한 의미가 적지 않다. 이러한 외부의 제언을 계기로 내부에서 훨씬 심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지역의 아포리아가 주어진 셈이라 하겠다.

문화정책 뉴스클리핑

2024. 01. ~ 03.

문화체육관광부

'24년 문체부, 청년과 취약계층, 산업, 지역
중점 지원한다(1.2)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4년부터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패스'를 지원해 여가 활동 부담을 낮추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예술인 2만 3천 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한다(2.8)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복지예산 1,067억 원으로 예술인들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과 주거, 자녀돌봄 등을 위한 지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2만 명에게 상하반기 구분없이 한 번에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명칭도 기존 '창작준비금'에서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변경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 유치 확정(1.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025년 제10차 문화예술 세계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했다. 문화예술 세계총회는 국제 예술위원회 및 문화기관 연합(IFACCA)에서 정회원 기관과 협력 추진하는 국제 행사이다. 본 행사에서는 전 세계 문화·예술 산업 관련 분야의 주요 정책 입안자, 정상급 인사와, 석학, 예술가들이 참여해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최신 이슈에 대해 논하게 된다.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10권
『부산의 환승역』출간(1.22)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미연, 이하 재단)은 <부산문화재단 사람·기술·문화 총서 시리즈> 열 번째 총서인 『경계를 넘다 사람을 잇다 - 부산의 환승역』을 출간했다. 이번 총서에는 11인이 필진으로 참여해 만남과 이별, 연결과 단절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대도시 중심부의 축소판인 '환승역'을 조명했다. 총 9개의 환승역을 지역사와 지역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근대 부산을 배경으로 철도와 관부연락선의 등장 이후 시작된 교통의 환승 역사를 전한다.

문화누리카드 2만원 인상, 13만원 충전!(1.26)

2024년 문화누리카드가 전년 대비 2만원 인상되어 1인 연간 13만원이 지급된다. 부산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분야 가맹점은 총 1,800여 개가 등록돼 있다. 특히 5월부터는 광안리어방축제, 6월 한우불고기축제, 10월 고등어축제, 자갈치축제 등 축제 기간 내 푸드트럭, 지역 특산물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 기간은 당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부산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참여예술의
거점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다.(2.1)

재단은 '2024년도 부산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제2차 부산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할 단체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문화재단-BNK부산은행
부산문화예술 발전기금 전달식 진행(3.5)

BNK부산은행은 부산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재단에 기부금 3천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부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인 콘텐츠 소비 하루 3시간, 월 39,67원...
어떤 콘텐츠에? "유튜브에 시간쓰고 OTT에
돈 쓰고"(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세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동향 브리프 24-1호'에서 한국인의 콘텐츠 소비량 및 시간을 분석한 결과, 소비시간은 하루 3.05시간(주 21.34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0.28%가 유튜브 동영상 소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39,673원을 동영상 소비에 지출하고 있었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캐나다에서 주목받는 한반도 DMZ 관련
미술전시(1.25)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재외한 국문화원, 해외 예술 기관들과 함께 국내의 우수한 공연 및 전시를 해외에 소개하는 '트래블링 코리아 아트' 사업의 일환 진행된 '리얼 DMZ 프로젝트' 전시 《경계협상》이 캐나다 오타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캐나다의 온라인 미술매거진 '아킴보(Akimbo)'에서는 본 전시가 "가장 중요한 미술전시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본 전시는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인 비무장지대의 현실과 작가들의 상상을 가상공간에 구현해 새로운 시각으로 DMZ를 재현했으며 총 16팀의 작가가 참여했다.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창립 20주년
미래비전 발표(3.15)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술하기 좋은 도시, 예술특별시 서울'이라는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재단은 문화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며, 예술인에게는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시민에게는 문화향유 확대, 본격적인 ESG 경영 등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강원문화재단

창립 25주년, '강원문화 청춘으로'
미래 25년 도약!(2.7)

강원문화재단은 2024년 창립 25주년을 맞아 '강원문화 청춘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4대 전략과제와 13개 실행과제를 발표했다. 강원 문화예술 정책 발굴 및 광역문화재단 역할 강화, 강원 문화예술 인프라 기반 강화, 강원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ESG경영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천문화재단

시민의 문화향유와
주체적 문화 활동의 기록(1.15)

인천문화재단은 인천 시민의 주체적 문화 활동과 특색 있는 문화 향유의 기록을 담아 <2023 문화기획프로젝트 : 시민x> 사업의 결과자료집을 재단 누리집에 게시했다. 동구·미추홀구 재개발 구역 이주민의 현황을 조사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 강화군의 지역 소멸에 대해 고민하는 지역 문화 탐방 워크숍, 남동구 우수지의 저어새 생태계 탐구 등, 지난해 인천 곳곳에서 시민 주체로 운영된 생활문화 프로젝트들로 모두 인천문화재단이 추진한 <문화기획프로젝트 : 시민x>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부제에 '시민x'에서 x는 시민과 다양한 주체를 연결하기 위한 의미로, 다양한 공간과 기초문화재단이 모여 총 2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부산관광공사

야간명소 이벤트 진행,
아름다운 부산야경을 국내·외에 알려(1.16)

부산광역시와 부산관광공사는 니콘이미징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까지 부산의 야간 사진과 영상 등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서 국제명소형 도시로 선정된 바 있는 부산을 국제적인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소개하려는 계획이다.

문화정책 이슈페이퍼
vol 24. / 2024 spring



ISSN 2713-4113